



박소현의 섹.시.토크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후배 K양의 결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신부의 얼굴이 여간 어두운 것이 아니다.

"좀 보수적인 사람인가 보지."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도 그랬잖아."



"일부러 야한 웃도 입고, 스킨십도 유도하고 그랬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욕구가 없어 보인다는 것은 결과가 뻔한 싸움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결혼 한 달 남았는데 키스도 못해 봤어요. 혼전 순결 지켜줘서 헤어지려고요."

들 큰일이다 싶은 얼굴이 되었다. "사실 결혼식 날이 제 생리 예정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약을 먹으면 어떡하느냐고. 그냥 생리하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은 해 놓고도 다들 '정말 이상한 건가?'하는 생각이 드는 건 또 뭐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말로 설명하러니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

이런 말을 누가 이해해 줄까. 의심만 무성한 대화만 나누다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죽은 채 연기해 죽음을 면한 배우 화제

무명 연예인의 안타까운 자살소식이 네티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난 1일 서울 모 오피스텔 지하 녹음실에서 남성 5인조 보컬그룹 엘스트리트의 리더 이서현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모았던 권상우는 예비아빠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26일 인도 뭍바이 시네 중심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테러 현장에서 죽은 연기로 목숨을 구한 남자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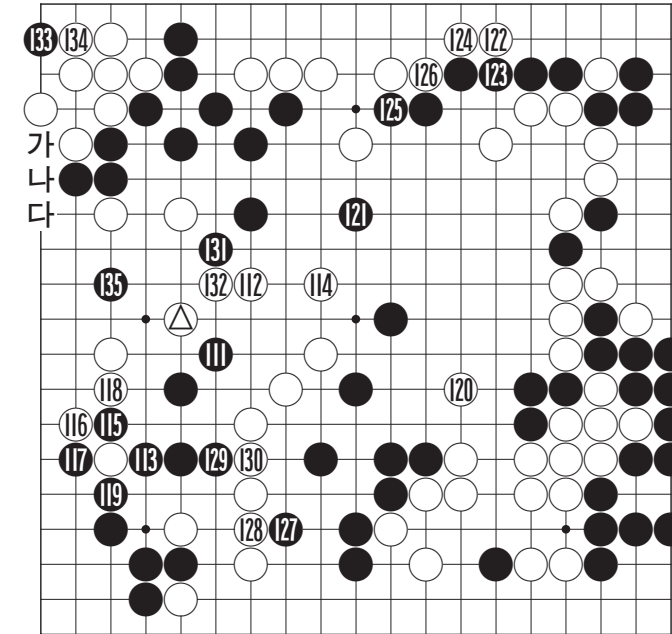


지난 1일 인도 뭍바이에서 테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를 기리는 촛불 추모식이 열렸다.

제89호 전국체전바둑대회

최후의 승부처

여성부 결승전 6번(111~135) 白 조경진 5단 黑 박지선 5단 (경기도) (경기도)



백으로 지켜서는 흑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 같은 팀의 동료라고는 하나 이 판에는 금메달이 걸려 있다. 같은 값이면 은메달보다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리는 눈에 차지 않게 된다. 흑 121이 바로 그런 수였다. 이 수로도 상변 124의 왼쪽에 마를 두고 하고 싶다.

굿모닝 잉글리쉬 <1204>

오하오우 니혼고 <1204>

니하오 쑹구위 <281>

한자 이야기 <921>

That sounds good. 그게 좋겠다

A : What should I bring to Tom's B : Do you have any games? A : Yeah, I could bring Bingo. B : That sounds good.

A : 탐의 집으로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B : 어떤 게임놀이가 좋겠어? A : 응, 빙고게임을 가져갈 수 있어. B : 그게 좋겠다.

\* sound : ~처럼 들리다 \* 메리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 What should I do about Mary?

よくお似合いのカップルですね。 잘 어울리는 커플이군요

A : こんにちは。今度(こんど)隣(となり)に引っ越してきた田中(なか)ともうします。 B : あら、新婚(しんこん)さん? A : ええ、2週間前に結婚(けっこん)したばかりの新婚(しんこん)ホヤホヤです。 B : まあ、そう。よくお似合いのカップルですね。

A : 안녕하세요. 이번에 옆에 이사온 타나카라고 합니다. B : 어머, 신혼(신혼)부부? A : 예, 2주일 전에 막 결혼(결혼)한 신혼(신혼)입니다. B : 어머, 그래요. 잘 어울리는 커플이군요.

引(ひ)っ越(こ)しをする : 이사하다 新婚(しんこん)ホヤホヤ : 갓 결혼(결혼)한 옛(옛) 신혼(신혼)부부

紅筆是他的。 빨간 펜은 그의 것입니다

A: 你看看, 是不是藍的? ni kankan shibushi lan de 君(きみ)의 연필(연필)은 파란색(파란색)이다

B: 啊, 是紅的。 a shi hong de 아(아)는 빨간색(빨간색)이다

A: 紅筆是他的。 hong bi shi ta de 홍(홍)펜(펜)은 그의(그의) 것이다

B: 对不起。 duì bu qi 미안(미안)합니다

A: 한번 볼까요? 파란색입니까? B: 아, 빨간색이군요. A: 빨간 펜은 그의 것입니다. B: 죄송합니다.

藍 [lán] 파란색 紅 [hóng] 빨간색

會者定離(회자정리) 모일 회, 사람 자, 반드시 정, 떠날 리

회자정리(會者定離)는 만나는 자는 반드시 헤어지게 마련이라는 불교(불교)어로, 이 세상의 무상(무상)함을 비유한다. 이 말은 부처(부처)가 열반(열반)에 들 때 제자(제자) 아난에게 한 말에서 유래한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기 마련이다. 그때마다 '회자정리'를 떠올리고, 다시 '떠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자필반(去者必反)으로 재회를 기약한다.

더마플라스트 밴드.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제품문의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5일(음 11월 8일 己卯) 36년생 가까운 친척으로 손재수가 있을 수다. 48년생 남 여 간에 이성에 빠질 수니 정신을 차려야. 60년생 남의 말을 꼼꼼히 살펴...